



말씀

“2021년 코로나 시대의 순교란?”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마 사람마다 무서운 것은 다를 것입니다. ‘폭력’, ‘폭언’, ‘위협적인 분위기’ 등등 무서움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다가오죠. 사제인 저도 인간이기에 당연히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제가 되기 전 저의 모습입니다. 특히 나를 너무나 관대하게 대하는 나의 모습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무섭다는 것을 일상에서 점점 체감하게 됩니다. 분명 폭력, 폭언, 위협적인 분위기 등등도 무섭죠. 하지만 몸 밖에서 시작되는 무서움은 쉽게 보여 다른 존재와 함께하면 극복 가능합니다. 그런데 몸 안에서 시작되는 무서움은 쉽게 보이지 않아 누군가와 함께하면 할수록 왜곡 현상이 심해집니다. 곧 무서움을 일으키는 외부적인 요소는 쉽게 보이지만, 내부적인 요소는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잘 드러납니다. 코로나 전 우리는 일상 속에서 바쁘게 생활하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만나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발생 후 우리는 ‘만남’과 ‘행동’의 제한이 생기자 여러 가지 감정을 한 번에 마주하면서 “내부적인 피로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감정을 만드는 내부적인 요소들은 외부적인 요소들보다 사람을 손쉽게 나약하게 만드는 무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의 생각과 감정의 변화를 섬세하게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순간의 변화를 일으켜 공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상 속에서 내면의 탐구인 ‘양심 성찰’을 하여 ‘하느님의 모상’인 나를 온전하게 보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를 무서운 존재로 만드는 ‘칠죄종’(일곱 가지 악의 뿌리)을 찾아냈죠.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식욕’, ‘나태’ 등은 우리가 느끼는 무서움이 사실 몸 외부가 아닌 몸 내부에서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진정한 무서움을 전달하기 위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장님 지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지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루카 9,24)

순교자들은 과연 무서움이 없었을까요? 그들도 인간이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폭력, 폭언, 위협적인 분위기 등등 그들이 마주한 공포는 상상을 초월하죠. 특히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본능에서 오는 감정들은 그들에게 큰 무서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존재’가 아닌 ‘무서움을 느끼는 존재’가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처럼 순교자들은 극도의 상황 속에서도 외부적인 요소를 통해 내부적인 요소를 살피는 “양심 성찰”을 끊임없이 하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위해 끊임없이 성부 하느님과 시간을 가지면서 잃지 않았던 믿음의 가치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대에 순교는 “진정한 편안함”을 위해 “개인의 편리함”을 비우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코로나는 분명 우리에게 큰 시련을 주지만,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보지 못한 것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에 우리를 강제적으로 초대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낮은 일상의 초대는 하느님께서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에게 주는 ‘제2의 세례’일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몸이 보내는 신호”임을 체험하고, 감정들이 보내는 신호를 잘 이해하여 진정한 생명을 발견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일상 속에서 과연 나는 “무서움을 느끼는 존재”인지, “무서운 존재”인지 바라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이 말씀이 “감정의 피로감”을 극복하는 발견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장님 지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지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루카 9,24)



장대환(베드로) 신부
상요환(1진비) 상당 주임

제 1 특 시 회 답 송 제 2 특 시 복음 권호송

지혜 3,1-9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로마 8,31ㄴ-39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복 음 영 성 제 송

루카 9,23-26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열 번째 시한

외방전교회 대표 리브와 신부님께

서울 한양에서, 1845년 3월 27일

지극히 공경하올 신부님!

신부님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지극히 존경하올 페레올 주교님을 모시고 몽고를 출발하여 변문까지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조선에서 온 신자들이 이미 도착하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교님께 담당 선교지인 조선에 입국하는 데는 여러 가지 난관이 많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주교님은 저를 먼저 조선에 파견하시어 제가 조선의 정세를 살펴보고, 가능성 여부에 따라 주교님의 입국을 주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페레올 주교님의 강복을 받고 한밤중에 신자들을 따라 출발하여, 해질 무렵에 의주 읍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르러 연락원들에게 어떠한 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으라고 약속을 하고서 연락원들을 먼저 앞세워 보내고 저는 홀로 의주에서 한 20리 가량 떨어진 아주 은밀한 산골짜기를 찾아들어 울창한 숲 속의 어두침침한 나뭇가지 밑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눈이 사방에 깊이 쌓여 산촌이 모두 하얗고 싸늘한데 밤이 되기를 기다리자니 너무나 지루하여 묵주 기도를 수없이 거듭하였습니다. 해가 지고 천지가 어둠에 잠겼을 때, 하느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곳을 떠나 읍내를 향해 가는데, 발자국 소리마저 없게 하려고 신발을 벗고 걸어갔습니다. 강들을 건너고 길도 아닌 험한 곳을 달려갔습니다. 어떤 곳은 눈이 바람에 불려 다섯 자 혹은 열자나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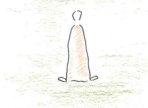
제가 겨우 약속하였던 곳에 이르러 보니, 신자들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어 두 번이나 읍내로 들어가 사방으로 찾아보았으나 헛일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복 음 묵 상

- 베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저 거울 앞에



저, 거울 앞에
서기 싫었어.

그래서, 그 앞에
서기가 두려웠어.

왠지, 보이는 모습이
힘들 것만 같았지.

그래도, 늘
그 앞에
서서 확신하게 되지.

상화이야기

성 정하상 비오로



성 정정혜 엘리사벳, 성 유소시 체칠리아, 성 정하상 비오로 1955년 김정섭 작 98x75
 St. Chong Chong-hye Elisabeth, St. Yu So-sa Caecilia, St. Chong Ha-song Paulus
 1985 Chung Chong-sup 98x75
 서울신교기독교박물관 Ch'ul Tu Son Martyrs' Shrine SEOUL, KOREA

성 정하상 바오로(Paulus)는 남인 양반의 후예로 경기도 양근 지방 마재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정씨 가문에서 최초로 신앙을 받아들인 복자 정약중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로 1801년 신유박해 때 받아들인 복자 정철상 카롤루스와 함께 순교하였고, 어머니인 성녀 유 체칠리아는 기해박해의 여파로 1839년 11월 순교하였다. 아버지가 순교할 당시 겨우 일곱 살이었던 정 바오로와 누이동생 성녀 정정혜 엘리사벳(Elisabeth)은 어리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함께 풀려났다.

그러나 가산이 모두 몰수당해 살길이 막연해지자 양근 지방 마재에 있던 그의 숙부 정약용 요한에게 의지하고 살았다. 그런데 숙부가 전라도 강진으로 귀양 가 있던 때였기에 천주교를 믿지 않던 친척들로부터 갖은 천대와 냉대를 받았지만, 정 바오로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기도와 교리를 충실히 배웠다. 하지만 의외인듯 탐바구니 속에서 신자의 본분을 지키기가 어려워 20세 때에 서울로 올라와 성녀 조증이 바르바라(Barbara)의 집에 머물면서 목자 없는 조선교회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교회 재건을 모색하였다.

그는 함경도에 귀양 가 있던 한학자 조동섭 유스티누스에게 학문을 배우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반 신분을 감추고 어떤 역관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 살다가 북경에 가서 세례와 견진과 성체 성사를 받고 주교에게 성직자 파견을 요청했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북경까지 9회, 변문까지는 11회나 왕래하였다.

그는 성 유진길 아우구스티누스와 조신철 카롤루스(Calolus) 그리고 강진에 유배 가 있는 삼촌 정약용의 자문과 후원으로 끊임없이 성직자 영입 운동을 전개했다.

그들은 로마 교황에게 탄원서를 보내는 한편, 북경 주교에게도 서신 등을 보냄으로써 마침내 조선교회가 파리 외방전교회에 위임됨과 동시에 조선 독립교구가 설정되었다. 마침내 그는 유방제(劉方濟) 파치피코 신부를 모셔 들이고, 모방·사스탕 신부와 앙베르 범 주교까지 모셔 들여 자신의 집에 모셨다.

정 바오로가 사제가 되기에 적당하다고 여긴 앙베르 주교가 그에게 라틴어와 신학을 가르치던 중 박해가 일어나자 그는 주교를 피신시키고 순교의 때를 기다렸다. 이때 그는 체포될 경우를 대비하여 “상제상서”를 작성했는데, 이것은 조선교회 최초의 호교론이다. 그는 이 속에 박해의 부당성을 뛰어난 문장으로 논박했기 때문에 조정에서까지 이 글에 대하여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1839년 7월 11일, 포졸들이 정 바오로의 집에 달려들어 그와 노모 그리고 누이동생을 잡아 포도청에 압송하여 바오로와 4대 조상까지의 이름을 명부에 올리고 옥에 가두었다. 이튿날 상제상서를 포장대리에게 주니 사흘 후 문초를 시작하였다. 정 바오로는 무서운 고통을 강인하게 참아나갔고 배교하라고 엄명하였으나 거절하자 옥에 가두었다. 며칠 뒤 다시 끌려나와 툭질형을 받아 살이 떨어져 나가고 골수와 피가 쏟아져 나왔다. 또한 그는 사스탕과 모방 신부의 은신처를 대라는 심문에도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그 후 두 신부가 자수한 다음 또 심문을 받고 세 차례의 고문을 받았다. 그리하여 1839년 9월 22일, 서양 신을 나라에 끌어들이던 모반죄와 부도의 죄명을 쓰고 서소문 밖에서 순교하였다. 이때 그의 나이는 45세였다. 그는 1925년 7월 5일 교황 비오 11세(Pius XI)에 의해 시복되었고,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기해 방한한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Joannes Paulus II)에 의해 시성되었다. (출처: 기쁨의 뉴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순교자 대축일: 강철 임원철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미사
 때: 9월 19일(주일) 10:00
- 제54회 군인 주일 미사 녹화(평화방송)
 때·곳: 9월 23일(목) 11:0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 ‘신부(神父)의 책장’ 이벤트 안내

- ‘신부(神父)의 책장’ 특별편 ‘신자(信者)의 책장’
- 신부의 책장 구독자들이 직접 읽은 책을 구독자들의 목소리로 직접 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슬기로운 중” - “어떻게 하는 중이 진실하고 슬기로운 중이겠느냐?” (마태 24,45)